

〈여니벽선성몽회록〉의 특징 일고찰

양혜승*

〈차 례〉

1. 들어가며
2. 조선후기 사회상과 문화수용 양상
3. 〈여니벽선성몽회록〉의 특징
4. 〈여니벽선성몽회록〉의 가치와 의의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이벽의 삶과 〈여니벽선성몽회록〉을 중심으로 형상화 양상과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니벽선성몽회록〉은 19세기 몽유록으로 단형화된 몽유록이며 천주교 사상을 담은 특이한 서술구조와 사유로 적절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한 일면이 있다. 몽유록의 전형적 특징은 사라지고 천주교 인물들의 대화와 특이하게도 열전 양식이 결합되어 독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조선후기 사회상과 천주교 수용을 짚어 보았으며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이벽의 존재를 그의 삶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통해 추적해 보았다. 이벽은 다산 정약용에게 깊은 학문적 영향을 주었으며, 당대 최고의 유학자로 인정받았던 이가환을 개종시키고 다산 형제들도 개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 천주교 초기의 실질적인 교회 지도자로서 설교와 교리해설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었다. 이것은 최근 천주교회서 진행하고 있는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 시성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볼 때 이벽이 배교자로 사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벽이 천주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후대에까지 강하게 남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철저한 구도적 연구를 거쳐 자발적으로 수용한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고 삶을 불태운 이벽의 천주교에서 위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충북대학교 교양교육본부 조빙교수

3장에서는 이벽의 형상화 양상을 통해 이벽의 천상선관의 모습으로 등장과 신비로운 분위기의 연출은 조선후기 널리 유행했던 <정감록>과 같은 비결신앙의 영향도 있지만, 당대에도 신선과 같은 학문의 깊이와 고결한 인품으로 칭송된 인물이고, 그런 그를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정황이 천주교 내에서도 숭앙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벽이 신선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단순히 도교적 신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천주교 내에서의 이벽의 위상과 존경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여니벽선성몽회록>에는 조선후기 변란 및 자연재해와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박해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박해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 하지만, 1846년의 현실만 빼면 그 이전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겪은 일의 열거 즉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여니벽선성몽회록>의 주인공이 이벽을 만나 역사적 사건을 우의한 예언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복원시켰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 복원되고 이러한 역사적 진실은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나며 현재의 순간과 충돌하는데 이것은 곧 천주의 심판과 사회체제 개혁 담론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예언의 내용과 충돌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부조리를 우의적으로 복원하고 과거에 대한 비판의식과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몽유록에서 서사와 논설의 결합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고 새로운 인식을 창출하여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몽유록을 수용해 당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천주교 박해를 통해 나타나는 이념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여니벽선성몽회록>은 몽유록 고유의 비판 의식을 이었으면서도 <정감록>과 같은 비결 신앙과의 문화수용 양상 등을 보여준다는 의의도 이 작품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몽유록이라는 양식이 단순한 환상적 서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부조리를 우의적으로 복원하고 과거에 대한 비판 의식과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여니벽선성몽회록>, 이벽, 천주교, 기억의 복원, 문화수용, 사회체제 개혁 담론, 우의

1. 들어가며

근대전환기 한국은 고립된 존재로서의 왕조 국가가 아니라 ‘전통’과 ‘근대’라고 불리는 이질적 시간성이 혼재하고 다양한 세계 문화의 파동과 충격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온 역동적인 교량적 시공간이었다. 근대전환기라는 모호한 용어는 좁은 의미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몇 년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애국계몽기’라는 명칭과 같은 특정한 입장을 전제하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근대전환기라는 용어가 좀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근대 문화의 역사적 형성을 다룰 수 있는 포괄성이나 융통성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근대화로 지칭되는 변화란 일직선적인 대체의 과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과 새것이 뒤섞이고 착종하고 충돌하고 경합하는 복잡다단한 과정이었다.

근대전환기의 이런 양상을 문화적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라 할 수 있는데, 한 유형의 문화가 다른 유형의 문화와 접변하여 새롭게 탄생한 문화적 현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접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과 갈등, 대립, 분열, 혼란의 양상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 근대전환기에 밀어닥쳐왔던 문명화의 물결 속에서 당대 서구인들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시선을 모방하고 내면화하며 나아가 전유하는 토착적 응시의 교차를 통해 문화횡단이 이루어지는 역동적 시공간의 장이 이루어진 문화적 현상의 하나는 다양한 문학 갈래에서도 나타났다.

몽유록(夢遊錄)은 15세기부터 근대전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히 창작되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몽유록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첨예한 비판과 진지한 문제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발전해 갔다. 몽유록은 현실계와 환상계를 잇는 오래된 문학적 장치이며 그 꿈에 가탁해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드러내는 문학적 관습에 의해 형성된 틀이기도 하다. 정학성¹⁾은 몽유록은 소의

된 사대부들이 역사 과정에 대한 갈등과 신념을 표출하기 위해 허구적 서사 유형을 그들 나름의 사고방식과 문예 전통인 寓言에 의해 변형시켜 창작된 것이라 하였다. 몽유록은 특정한 상황과 계기에 의해 파생된 문제의식을 오래된 문예 전통인 우언으로 형상화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여니벽선성몽회록〉은 1846년에 지어진 19세기 몽유록으로 천주교적 사유와 몽유록과 열전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대의 몽유록과는 변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 작품은 소재영²⁾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는 이 작품이 <류한당언형실록>, <성교요지>와 함께 같은 소장자에서 나왔으며, 작품의 말미에 있는 ‘덩유덩아오스덩셔우등셔정이라’라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덩아오스덩’은 정약종이며 1777년에 정약종에 의해 기술된 것으로 보았다. 또 필사자와 몽중 설화자가 실제 인물이라고 하였고, 유불도를 부정하는 새로운 서학사상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 천주밀협기라는 예언서를 통하여 천주의 재림을 이벽의 환생을 통해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차후의 연구를 통해 정약종이 기술했다거나 필사자와 몽중 설화자가 실제 인물이라는 그의 추정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옥희³⁾는 <류한당언형실록>에 대한 논문에서 <여니벽선성몽회록>을 간략히 언급했는데 저자가 정약종일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조동일⁴⁾은 작품명을 <니벽전> 또는 <여니벽선성몽회록>이라고 언급하면서, 작품의 작가가 정약종은 아니며, 이벽을 숭앙하던 후대의 신도가 창작한 것이라 하였다. 몽유록의 형식이지만 비기류에 관심을 갖고 도교적인 요소를

1)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 의식과 유형적 특징」,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1977, 277~298쪽.

2) 소재영, 「資料解題」, 『송실어문』 1, 송실대 국어국문학회, 1984, 215~291쪽.

3) 김옥희, 「류한당 권씨 언행실록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27, 일지사, 1982, 2050~2083쪽.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제 3판), 지식산업사, 1995, 423~424쪽.

가미하여 천주교를 옹호하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윤민구⁵⁾는 <여니벽선심몽회록>을 현대어로 옮기면서 간단한 해제의 글을 통해 작품을 소개했다. 이 작품은 필사 간지를 살펴볼 때 저자가 정약종일 가능성은 없으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아오스당이란 세례명을 가진 사람이 정유년(1897)에 필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학 형식은 몽유록이며 이 작품의 원본은 1846년에 이벽의 권위를 빌어 역사적 사실을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며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에게 종말론적인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지어진 묵시문학⁶⁾으로 보았다. 그는 이벽이 지었다고 알려진 <성교요지>가 위작임을 알려 교회사 연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민은 그의 저서에서 윤민구의 견해는 충분하고 타당한 입증의 논의를 펼쳤으며 교회사 연구를 위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성용⁷⁾은 <여니벽선심몽회록> 연구를 통해 천주교 사상을 배경으로 창작되었으나 기존의 문학적 관습들을 받아들여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작품의 의도를 구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당대에 유행하던 秘決信行과 신선사상 등에 강하게 영향받고 있다고 하면서 기존 문학 양식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상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작품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시각은 좋으나 이벽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나 천주교 교회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루어진

5) 윤민구, 『초기 한국천주교회사의 쟁점 연구』, 국학자료원, 2014.

6) 묵시(默示, Αποκάλυψις, apocalypsis, 아포칼립스)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신이 선택한 예언자에게 주었다는 「비밀의 폭로」,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묵시를 기록한 게 묵시문학(默示文學)이다. 묵시문학은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 전통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묵시문학에서는 천지창조 이래 현대를 거쳐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대구분 설명, 선과 악 대립, 현대가 악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인식, 종말에 의한 악의 시대의 임종, 사망자 부활, 마지막 심판, 천국과 지옥 등 교의가 주어진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C%B5%EC%8B%9C>, 접속일자 2024.10.11.)

7) 조성용, 「<여니벽선심몽회록>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자료는 오류가 간혹 보인다. 좀 더 세분화되고 엄정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이벽전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점을 언급하면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한 점도 허구적 장르인 소설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해야 할 것 같다.

김영수⁸⁾는 이벽의 삶과 <여니벽선성몽회록>을 중심으로 한국 카톨릭의 전래사 속에서 형성된 한국 카톨릭 전승의 형상화 방법을 탐구하고 그 문화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는 18세기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이벽의 실제적 삶에 대비하여 민속과 생활 속에서 형성된 신앙의 한국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이벽의 변화, 작품 내적 지향, 당대 사회의 흐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결론으로 제시된 신앙의 중심이 전래 초기 지식인에서 일반 서민으로 바뀜으로써 카톨릭이 한국화되었다는 해석은 좀 더 역사적인 증거와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민⁹⁾은 서학의 태동기부터 신유박해까지 護敎와 순교를 넘어 한국 초기 교회사를 쓴 책을 통해 광암 이벽의 조선 천주교에서의 영향력과 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벽전>은 허구적 창작물이지만 소설의 작가가 하필 이벽을 대상으로 이 작품을 지었으며, 작품에 나타난 종말론적 사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거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와 같았던 광암 이벽의 고결한 신앙이 흐려져, <니벽전>에서 그려진 것처럼 종말론 신앙의 전파자처럼 여겨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를 볼 때 초창기에는 작품의 대체적인 성격을 소개하고 작품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연구가 소략하여 제출된 논문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8) 김영수, 「한국 가톨릭 전승의 형상화 방식-이벽과 <여니벽선성몽회록>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4호, 2007.

9) 정민,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김영사, 2022.

우선 <여니벽선심몽회록>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몽유록 부분**

- 1) 여(余, 予)는 이벽의 죽음 후 60년이 되는 병오년(1846년) 6월 14일 기이 한 꿈을 꾸고 내용을 기록함.
- 2) 이벽이 꿈에 나타나 긴히 전할 말이 있어 내려 왔다고 함.
- 3) 이벽과 정학술이 천주교 교리에 대해 문답함.
 - ① 천지창조 : 우주만상의 존재가 천주의 창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천주의 공덕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함.
 - ② 인간창조 : 원래 극락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나 인간이 죄를 지어 세상에서 고통을 받게 됨.
 - ③ 선인, 악인을 막론하고 고난 받는 이유 : 인간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서는선인이나 악인이 모두 함께 고난을 받음. 천주의 아들인 耶穌(예수)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 그러므로 재앙과 괴로움을 면하려면 천주를 공경해야 함.
 - ④ 유·불·도의 문제 : 석가모니·공자·맹자 등도 천주가 창조한 사람이므로 신으로 섬길 수 없음을 말하고, 옥황상제나 용왕은 미신에 불과함.
 - ⑤ 제사문제 : 조상의 영혼을 신이라 하여 받드는 것은 잘못임.
 - ⑥ 천주교에 대한 박해 : 모함으로 인해 일어남. 죄인의 무리가 득세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임.
- 4) 이벽이 병오년(1786년)에 지은 『턴주밀힘기』를 찾아 필사하여 교도에게 알리도록 지시
- 5) 『턴주밀힘기』 중 <리세레케언기>의 내용 소개 : 갑인년(1794년)부터 시작하여 여러 재앙들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고 병오년(1846년)에 내세가 임하게 됨.
- 6) 잠을 깨어보니 달이 밝고 인사가 되었음.

◆ 이벽전 부분

- 1) 이벽의 가계 소개
- 2) 이벽의 예사롭지 않은 탄생과 비범한 성장
- 3) 학문과 신앙 수양의 모습
- 4) 부와 신앙 문제의 갈등으로 두문불출하며 『턴주밀협기』 지음
- 5) 이벽이 昇天直路 했음을 말함.

<여니벽선성몽회록>은 19세기 몽유록인<금산몽유록>·<만옹몽유록>과 같은 단형화된 몽유록이며 천주교 사상을 담은 특이한 서술구조로 적절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한 일면이 있다. 몽유록의 전형적 특징은 사라지고 천주교 인물들의 대화와 특이하게도 열전 양식이 함께 구성되어 독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몽유록에서는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천주교 신앙과 특이한 구조지만 독특한 사유와 서술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몽유록의 가치와 위상, 작품 내용에 나타난 메타모포시스 및 형상화 양상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2. 조선후기 사회상과 문화수용 양상

1) 조선후기 사회상과 천주교 수용

조선후기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 화폐 경제체제의 발달이 두드러져 다양한 변화와 함께 중세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농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廣作으로 농민층의 분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많은 농민들이 유민화되어 토지로부터 이탈이 촉진되었다. 또 三政의 문란으로 인한 가혹한 중세적 수취체제의 모순으로 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민이 발생한 지역의 조세는 남아있는 친족이나 이웃에게 다시 전가됨으로써 유민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그동안 농업을 중

심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이윤추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공업 종사자들의 수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민중들은 고리대의 부담을 안게 되고 부농과 빈농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한편 양반 계층도 이러한 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京華士族은 한양과 근교에 거주하는 사족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통용되었지만, 조선후기 정치를 주도하여 세가·별열을 이루었고 서울에 집중되는 권력을 과점하고 지방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여 정치·사회 세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였다. 권력에 소외된 이른바 향반이나 몰락 양반들은 상황이 평민보다 못한 부류도 많았다. 경화사족 중 지방 사림이 주도했던 성리학에 국한되지 않고, 학백과 당색, 신분을 뛰어넘는 교유 양상을 보이며 최신의 학술과 문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학풍과 문풍을 주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거나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출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중세사회의 모순을 깊이 인식한 지식인들 중에는 변란을 모의하는 저항적 지식인들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민중들은 여러 모순에 대항하는 다양한 민중 운동을 일으켰으며 사상적 배경으로는 여러 비기류를 종합한 <鄭鑑錄>을 비롯하여 미륵신앙, 도교사상, 용신앙과 같은 민간신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감록>은 민중 반란의 사상적 기반으로 현실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직관하고 이상향에 대한 염원이 ‘十勝地’로 형상화 되고 왕조교체를 의미하는 ‘李亡鄭興’과 ‘海島起兵說’의 예언으로 강력한 저항의 논리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에서 천주교의 발생은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된 西學의 형태로 전해졌다. 조선에 서양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국을 통해서였다. 동양적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던 조선에 서양은 새로운 존재였으며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던 서학은 기존의 지식과는 구별되는 색다른

것이였다. 중국에서는 1601년 마테오리치의 북경 거주를 계기로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유럽에 관한 지식이 본격적으로 소개 되었다. 중국에 진출한 서양 선교사들은 서적 출판 등의 방법을 통해 인문 지리학이나 자연과학 지식을 중국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조선은 중국에 사행을 보내면서 연행사가 견문한 사실이나 입수된 서양서들을 통해 점차 서양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¹⁰⁾ 한국천주교회는 밖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띠고 한반도에 들어와 전교 활동을 펴는 선교사의 활동 없이 쇄국 조선의 전통적 유교지식인들에 의하여 창립된 교회였다. 즉, 서학(西學)이라는 학문 활동으로 천주신앙에 도달한 사람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창설된 교회였다.

이는 주로 18~19세기 연행사들의 북경 체류기 중 천주당 견문기를 통해 서양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천주당이 서양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였기 때문이다. 천주당 관람의 목적은 연행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주된 관심사는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제도의 견문과 서양인들과의 교류였을 것으로 보인다.¹¹⁾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 초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최초로 영세를 받고 돌아옴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1791년에 윤지충이 어머니의 상에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린 일로 문제가 되어 일어난 진산사건 또는 신해박해(1791)가 발생하자 보유론적 천주교 신앙이라는 처지에 한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교와 천주교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을 조상제사 문제에서 지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어려운 결정의 시기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새로운 결심에서 신앙생활의 새 경지로 매진하는 교인도 많았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한국천주교회는 보유론적 천주이해라

10) 노대환, 「조선 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1997, 123쪽.

11) 장경남, 「18~19세기 연행록의 천주당 견문기와 서학 인식」, 『근대전환기 문학·예술의 메타모포시스』, 도서출판 선인, 2019, 19쪽.

는 초기신앙 형태의 문화주의적 종교신앙에서 순수한 천주신앙으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한국천주교회의 제2의 장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785년 푸른 두건을 쓰고 얼굴에 분을 바른 이벽이 미사를 집전하다가 노름판이 벌어진 것으로 착각한 순라꾼의 급습으로 천주교 집회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을사추조적발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인이었던 김범우가 죽고 이벽은 가족의 반대로 칩거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초기 천주교를 이끌었던 독보적인 인물이었던 그의 죽음은 1785년과 1796년 사망설로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천주교에서 추진하는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시성을 추진하면서 1785년으로 일단락 지어지는 분위기다. 이벽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려고 한다. 이벽은 다산 정약용에게 깊은 학문적 영향을 주었으며, 당대 최고의 유학자로 인정받았던 이가환을 개종시키고 다산 형제들도 개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 천주교 초기의 실질적인 교회 지도자로서 설교와 교리해설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었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 다산의 <조선복음전래사>에서 전제한 것이 분명한 <조선순교사비망기>에서는 이벽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㉗ 이벽은 키가 8척이고 도 한 손으로 100근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장대하고 잘생긴 외모는 위엄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재능은 매우 잘 어울리는 외모에 못지 않았다. 언변은 웅대하게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할 수 있었다. 모든 점에서 탁월한 지능을 타고난 그는 사물의 이치와 도리의 참된 근거만을 찾았다. 어디서나 열심히 사물의 본질에 침투하려 하였고, 이 나라의 경서 공부에서는 젊어서부터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유리한 재능들은 그에게 찬란한 장래를 보장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연구하는데 전심하였고, 또 그의 노력의 성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학문에서 그를 돕고 지도할 수 있는 학식 있는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¹²⁾

이후 천주교는 邪學으로 규정되어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으나 신지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난 듯 싶다. 특히 여성들의 교세 확장은 눈여겨볼만하다. 1801년 10월, 黃嗣永이 천주교 박해의 실상과 해결책을 비단에 적어 北京에 있던 서양 신부에게 보내려다 발각돼 참형을 당하는 帛書事件이 발생한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천주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순교자들이 속출했으며 신유박해로 이어지게 된다. 집권세력은 천주교가 미풍양속과 인륜을 어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팔아먹는다고 생각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2)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이벽의 존재

이벽(李穡)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덕조(德操), 호는 광암(曠菴)으로, 1754년 포천 화현리에서 태어났다. 본디 그의 집안은 무반으로 이름이 있었지만 이벽은 학문에 더 뜻을 두었고, 광주 마재에 살던 나주 정씨 집안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된 뒤에는 정약전·약용 형제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학문을 닦았다. 그는 안동 권씨를 아내로 맞았다가 사별하고, 해주 정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이벽은 고향을 떠나 서울의 저동으로 이주해 살다가 수포교 인근으로 다시 이주하였다. 1783년 말에는 이승훈이 북경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찾아가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천주교 서적들을 얻어올 것을 부탁하였다.

1784년 3월 이승훈이 북경에서 예수회의 그람몽(J.J. de Grammont)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고 귀국하자, 이벽은 그가 가져온 새 천주교 서적들을 얻어 깊이 연구하였다. 그러면서 천주 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는 스승과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교리를 설명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런 다음 이승훈과 의논하여 세례식을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12) 다블뤼, 「조선순교사비망기」,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제 1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2017, 29쪽.

1784년 겨울 이승훈을 비롯하여 권철신의 아우인 권일신과 정약전·약용 형제가 수포교 인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 모였다. 그리고 이승훈은 자신이 북경에서 배운대로 동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 이것이 조선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세례식이었다. 이때 받은 이벽의 세례명은 요한 세례자, 권일신의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정약용의 세례명은 요한 사도였다.

이후 이벽은 동료들과 함께 교리를 전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서는 홍낙민, 최창현, 김범우 등이 세례를 받았고, 충청도의 이존창, 전라도의 유향검, 경기도의 권철신도 세례를 받았다. 이벽의 집에서 이루어지던 신앙 공동에 모임을 명례방(明禮坊) 김범우의 집으로 옮긴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 사건으로 집주인 김범우는 충청도 단양으로 유배되었고, 이벽과 이승훈은 가족들에 의해 배교를 강요당해야만 했다. 이벽의 부친은 그를 고향으로 불러 집 안에 가두고는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였다.¹³⁾

그의 아버지는 천주교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살을 기도하려고까지 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이벽은 중의성을 띤 모호한 말을 통해 신앙을 숨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는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일체 끊었으며, 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다가 1786년 전염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¹⁴⁾

그의 사망 시점과 사인에 대해서는 달레의 기록처럼 1786년에 전염병 페스트에 걸려 33세에 사망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통하고 있었다.

㉔ 이벽이 말을 듣지 않자 그(아버지)는 목을 매어 자살하려고까지 하였다. 이에 이벽은 두 가지 뜻을 가진 말을 써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었고 그 후로는 외부와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살았다. 그는 자신의 배교적 행위에 대하여 무서운

13) 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 특별위원회 편찬,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25~28쪽 참조.

14) 샤를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229~321쪽.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다가 1786년 본 33세를 일기로 요절하였다.¹⁵⁾

㉔를 보면 1985년까지 이벽의 1786년 사망설을 통설로 믿은 듯하다. 그리고 그를 배교자라고 본 이유는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하느님은 그 마음에서 이미 첫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지 않았으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 자’라고 써어 있는 까닭이다” 라고 한 기록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교회사학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벽의 족보와 묘가 발견되면서 그의 사망년도는 1785년이며, 그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점증하였다. 이것은 다산 정약용이 쓴 <우인이덕조만사(友人李德操輓詞)>가 『다산시문집』에 1875년에 실렸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 창설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인으로 공경받는 103위 순교자들인 후대 순교자들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것을 떠나 배교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근 천주교회서 진행하고 있는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 시성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볼 때 이벽이 배교자로 사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벽이 천주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후대에까지 강하게 남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벽이 천주교 창설에 있어 어떤 존재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㉕ 을사년(1785년) 봄에 이승훈과 정약전, 약용 등이 함께 장례원 앞에 있는 중인 김범우의 집에서 설법을 하였는데, 이벽(자퇴당 이진형의 후손이며, 병사 이격의 아우이고, 병사 이석의 형이다)이라는 자가 있어, 푸른 두건으로 머리를 덮어 어깨까지 드리우고 主壁에 앉아 있었다. 이승훈과 정약전, 전약중, 정

15) “이벽”, 『한국기독교사학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942쪽.

약용 삼형제 및 권일신 부자가 모두 제자라 일컬으며 책을 옆에 끼고 모시고 앉았고 이벽이 설법하여 가르치는데, 우리 유가의 사제시간의 예법보다 더욱 엄격하였다.¹⁶⁾

㉔의 인용문을 보면 천주교 창설 초기에 그들이 천주학을 알고자 얼마나 진심이었고 이벽의 존재가 지도적 위치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벽은 주자학이 사상적인 면에서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해박한 유가적 경학 사상을 겸비한 학자였기에 유학과 서학의 만남을 통해 시대의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 구도자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777년(丁酉) 무렵부터 시작되어 1785년 봄까지의 강학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색으로 주자의 글과 정자의 글을 읽었고, 1783년(己卯)을 전후하여 <曆數之學>과 <幾何原本>을 연구하였다. 이 강학회의 최초의 목적이 유교적인 모임이었다는 증거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다산이 지은 정약전의 묘지명에서 “沼乎武夷 溯乎洙泗”라 했듯이 朱子와 程子の 학문을 통해서 進德修業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¹⁷⁾

천주교회사에서 그의 영향력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다블뤼 안 주교의 <조선순교사비망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블뤼 주교는 그의 비망록에서 한국 교회의 기원을 이승훈의 북경 영세에 두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조선천주교회의 역사는 이벽의 저 위대한 강학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벽은 천주께서 간택하여 쓰신 도구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 후기 유학자인 광암(曠菴) 이벽(李檟)은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16) “乙巳春, 承薰與丁若銓若鏞等, 說法於掌禮院前, 中人金範禹家. 有李蘖者(知退堂李廷馨之後孫, 兵使格之弟, 兵使哲之兄), 以青巾覆頭垂肩, 主壁而坐, 承薰及若銓若鏞若鏞三兄弟, 及權日身(監司欽之後哲身之弟)父子, 皆稱弟子, 挾冊侍坐, 蘖說法教誨, 比之吾儒師弟之禮尤嚴” 李晩采 編, 『關衛編』(影印), 卷2, 김시준 편역, 명문당, 463쪽.

17) 金玉姬, 「西學의 受容과 그 意識構造」, 『韓國西學思想史 研究』 國學資料院, 1998, 82~83, 89쪽.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면에서 매우 독보적인 인물이다. 유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벽은 다산 정약용에게 깊은 학문적 영향을 주었으며, 당대 최고의 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가환을 개종시킬 정도로 유학에 정통한 학자였다.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벽은 또한 다산과 그의 형제들을 개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승훈으로 하여금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게 권하였으며, 한국 천주교 초기의 실제적인 교회의 지도자로서 설교와 교리 해설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었다.¹⁸⁾

이런 면에서 이벽과 다산의 만남은 그의 일생을 바꾸게 된 계기였다. 1784년(정조 8년) 4월 15일에 그들은 처음 만났다. 이벽의 누이는 정약용의 형수였는데, 마침 그 날은 형수의 제삿날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이벽과 정약용, 정약전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한강에서 배를 탔다. 배 안에서 정약용 형제는 이벽에게 천주교 교리를 들었다. 새로운 사상과의 조우에 정약용은 “맏형수의 기제(忌祭)를 지내고 나서 우리 형제와 이벽이 한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올 적에 배 안에서 이벽에게 천지(天地) 조화(造化)의 시작과 육신과 영혼의 생사(生死)에 대한 이치를 듣고는 정신이 어리둥절하여 마치 하한(河漢)이 끝이 없는 것 같았다.¹⁹⁾”고 기록했다.

그는 23세에 서학자(西學者)로 유명한 우인(友人) 이벽(李檟)으로부터 천주교리를 들었으며 또 자기 자형 이승훈의 중국 연경행을 통하여 천주교 서적과 서양 근대 천문학·수학, 지구도, 자명종, 천리경, 서양풍속기 기타 다수한 서적과 기물을 얻어 보았다.

예기(銳氣)가 왕성한 다산은 부패하고 대중성이 없는 유교를 싫어하고 과학기술과 부국강병을 배경으로 선전하는 종교에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벽의 권고에 의하여 자기 중형 약전, 삼형 약종과 함께 한동

18) 배요한,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이벽의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41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11, 393~415쪽.

19) 『다산시문집』 15권, 「先仲氏墓誌銘」.

안 교회에 비밀히 관계하였으며 ‘요한’이라는 세례자 영명(靈名)까지 받았다고 조선천주교회사는 말하고 있다.²⁰⁾

㉔ “갑진(1784년)년 여름(그때 내 나이 23세였다) 임금께서 중용에 관한 70조목의 문제를 내시고 태학생들에게 답을 지어올리도록 했다.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 당시 내 친구 광암 이벽이 수표교에 살고 있었다(그때 이벽의 나이 31세였다). 나는 광암에게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지 물었다. 광암은 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 들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의 답안을 작성했다.

며칠 후 임금께서 답안의 결과를 아시고 도승지 감상집과 승지 홍인호를 불러 정약용이 누구며 그 당시 다른 학자들과 비겨 경전에 대한 그의 학식이 어떠한지 하문하셨다. 임금께서는 모든 태학생들의 답안이 보잘 것 없는 데 반해 유독 약용의 것은 뛰어났다고 하시며 다른 박식한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를 도와준 것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답안에서 전하의 마음에 든 것은 학자들의 이발기발설(理發氣發說)에 관한 나의 중용 해석이었다”(중용강의보서, 1814년)²¹⁾

갑작스러운 이벽의 사망 소식은 정약용의 전생에 걸쳐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정약용은 이벽을 스승처럼 따랐기 때문이다. 그는 이벽을 평생에 걸쳐 그리워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814년 강진 유배시절에 이벽과 젊은 시절 함께 작성했던 <중용강의>를 정리해 <중요강의보>로 낸 뒤 서문에서 이벽의 고상한 이상과 학덕을 격찬하고 “이제 구름처럼 흘러가 이미 아득한데, 아름다운 목소리는 영원히 그쳐 이제 질문할 곳이 없고, 광암과 토론하던 해를 헤아려 올라가니 또한 이미 삼십 년이 되었다. 광암이 살아 있다면 그 眞德博學함이 어찌 나에게 비하겠는가? 새것과 옛것을 하하여 살펴보니 깜짝 놀랄 만하거늘, 한 사람은 살아 있고 한 사람은 죽었

20) 최익한 지음, 송찬섭 엮음, 『실학파와 정다산』, 서해문집, 2011, 219쪽.

21)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이벽의 한국적 신학원리』 제3판, 분도출판사, 2001.

으니 어찌 탄식함이 미칠 수 있으랴? 책을 어루만지며 눈물 흘리기를 금하지 못하겠다.²²⁾”라 하였다. 53세의 노장이 된 다산이 이벽을 못 잊어 그의 책을 어루만지며 울만큼 이벽은 그에게 있어 또 하나의 하늘이었다. 다산은 이벽에 대한 그리움을 다음과 같은 시로 남겼다.

㉔ 友人李德操輓詞²³⁾(벗 이덕조만사)

선학이 인간 속에 내려왔던가	仙鶴下人間
고고한 그 풍채가 절로 드러나	軒然見風神
날개 털 새하얗기 눈과 같아서	羽翮皎如雪
닭이며 집오리들 시기하였네	鷄鶩生嫌嘖
울음소리 하늘 끝 울려 퍼졌고	鳴聲動九霄
맑고 고와 풍진을 벗어났더니	嘹亮出風塵
갈바람 타고 문득 날아가 버려	乘秋忽飛去
남은 사람 마음만 슬프게 하네	悵悵空勞人

정약용에게 이벽은 고결하고 높은 인품의 선학과 같은 존재였다. 적대자들을 닭과 집오리로 비유하면서 이벽의 죽음을 절절히 애도하였다. 또 정약용은 ‘贈李槩’이라는 시에서 ‘현인호걸 기운은 서로 투합하여 친근하고 도탑게 정을 쌓았네 학덕을 근면하게 일찍 닦아서 강개한 빛 얼굴에 항상 보였네’라며 그의 고매한 기상과 학덕을 찬양하고 있다.²⁴⁾

22) “今雲遊已邈，玉音永闕，既質問無處，而上計曠菴討論，亦已三十年矣。使曠菴而尙存，其進德博學，豈余比哉。合觀新舊，其必犁然，一存一亡，何嗟及矣。不禁撫卷而流涕也。” 丁若鏞，〈中庸講義補〉，정인보·안재홍 校閱，『與猶堂全書』第2集 4卷，여강출판사，1985.

23) 정약용 저，〈友人李德操輓詞〉，與猶堂全書[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一卷 詩集，디지털장서각.

24) 贈李槩(이벽에게 주다)

음양은 고쳐지지 않는 거지만	二儀雖不改
칠요가 번갈아서 진퇴를 하니	七曜迭舒卷

광암 이벽은 정약용에게만 그림거나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아래의 박제가의 애도시는 그가 한국 천주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의 학문적 깊이는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李德操[蘖](이덕조 애도시)²⁵⁾

진나라 사람은 명리를 숭상하여	晉人尙名理
청담으로 세상을 어지럽혔지	淸譚亂厥世
덕조는 천지 사방 이치를 논했어도	德操議六合
어디 실제에서 벗어난 적 있었던가	何嘗離實際
홀로 시운(時運)에 관심을 두고	匹夫關時運
낡은 집에서 경세제민에 뜻을 두어	破屋志經濟
가슴속에 천문학을 크게 품었으니	胸中大璣衡
사해에선 그대 홀로 조예가 깊었지	四海一孤詣
사물마다 그 본성을 깨우치고	物物卹性體
형상마다 그 비례를 밝혀왔으나	形形明比例
몽매함이 진실로 열리지 않아	鴻荒諒未開
훌륭한 말 그 누가 알아들었으리오	名言孰相契
하늘 바람이 앵무새에 불어오면	天風吹鸚鵡

새 봄 되어 초목들 생기 넘치나	嘉木敷春榮
무성함도 얼마 후 쉬이 변하네	倥偬被驅迫
몰리는 신세되어 곤궁해지면	倥偬被驅迫
약간의 동정마저 하소연 못해	不能訴餘戀
온갖 사물 공평해 편파없거니	庶物無偏頗
부귀영달 그 어찌 부러워하랴	貴達安所羨
현인 호걸 기운은 서로 투합하여	賢豪氣相投
친근하고 도답게 정을 쌓았네	親篤欣情眇
학덕을 근면하게 일찍 닦아서	令德勉早修
강개한 빛 얼굴에 항상 보였네	慷慨常見面

25) 박제가 지음·정민, 이승수, 박수필 번역, 『정유각집』 상, 돌베개, 2010, 조정 박제가 <정유각집 상>, 四悼詩 四首 중 李德操[蘖]

번드쳐 새장 밖으로 나가려 하였더니	翻成出籠計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남은 꿈 깨어지고	蘧廬罷殘夢
청산에 신령스런 지혜 묻히고 말았네	青山葬靈慧
세월은 잠시도 쉬지 않으며	春秋不暫停
만물은 떠나가지 않음이 없으니	萬化無非逝
휘파람 길게 불어 기러기 전송하다가	高歡送飛鴻
온 세상에 남몰래 눈물 흘리네	乾坤暗雙涕

박제가는 1778년과 1790년, 1801년 등 4차례에 걸쳐 사신행차를 수행했던 중국통이었다. 그는 ‘북학의’를 지어 나라를 개방 모드로 바뀌야 함을 역설했다. 둘의 교분은 신분과 당색조차 달라 뜻밖이다. 이벽이 서학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박제가에게 먼저 접근했을 것이다.

박제가는 1788년 4월 유금(柳琴)이 세상을 뒀을 때, 그를 포함해 평생에 가까웠던 네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도시(四悼詩)’를 지었다. 그중 한 편이 ‘이덕조(李德操)’이다. 덕조는 이벽의 자(字)이다. 이벽의 죽음을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세 해를 묵힌 뒤에 썼다.²⁶⁾

앞의 10구에 나오는 이벽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다. 육합의 이치를 논한 이벽의 학문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으려 애썼고 시운을 미리 파악하여 경세제민과 천주교를 가슴에 품었다고 했다. 사물마다 본성을 깨우치고 형상마다 비례를 밝힌 점은 온 세상에서 홀로 빛난다고 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몽매하여 하늘의 기운이 앵무새에 불어오면 세상에 나가 자신의 이치를 설파하려 했지만 꿈은 깨어지고 신령스런 지혜는 청산에 묻혔다고 했다. 여기서 새장에 갇힌 앵무새는 이벽의 상황을 의미한다. 누구보다 고귀한 자질을 갖추었으나 아직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박제가에게 이벽은 신령스런 지혜를 가진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

26) 정민, 『다산독본 파란 1』, 천년의 상상, 2019, 211~214쪽.

그의 짧은 생애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박제가에게는 안타깝고 애절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언한 것처럼 한양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정약용 형제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교하고 이가환과 이기양을 만나 사흘간이나 계속된 논쟁, 권철신을 찾아가 천주교 교리를 설교하여 입교하게 된 일 등을 통해 달래는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이벽의 말은 분명하고 똑똑해서 사방에 빛을 던져주고 있었다. 그의 논증은 태양같이 빛났고, 바람처럼 휘몰아쳤으며, 갈날처럼 끊어냈다²⁷⁾”라고 묘사하였다. 이벽의 이런 활약은 남인들에게도 파다하게 퍼졌다고 한다.

이벽에 대한 평가는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에서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전언과 나동선(羅東善, 1743~?)과의 문답에서도 드러난다. 이덕무는 이벽이 서학과 수리 방면의 전문가이며 사람됨이 고결하다고 했다. 나동선은 이벽을 기인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천주실의>를 몹시 좋아한다고 했다.²⁸⁾

한편 이벽의 짧은 생애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억은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초기 천주교의 성조처럼 추앙받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벽이 돌연 사망했을 때 10살 정도의 나이였을 황사영(黃嗣永, 1775~1801)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충청북도 제천의 배론(舟論)으로 피신하여 토굴 속에 은거하면서 신유박해로 타격을 입은 조선교회의 참상과 교회의 재건책을 북경 주교에게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황사영백서>이다. 황사영은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순교자들의 기록을 적어 나갔는데, 이벽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면 그의 천주교회 창설에 대한 업적을 알 수 있다.

27) 샤를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309쪽.

28) 정민,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김영사, 2022, 83~85쪽.

이벽의 죽음으로부터 36년이나 뒤인 1821년 충남 솔피에서 태어나 15세 때(1836) 마카오로 떠난 김대건 신부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도 생활 속에 깊이 녹아 있었던 신앙의 상황과 그의 존재에 대한 기억의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㉞ 조선에는 많은 철인들(philosophantes)이 우주만물의 창조주요 주재자이신 참 천주가 계시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연구하여 인식하고 섬기었는데, 그들 중에 뛰어난게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깊이 연구하여 참되신 천주를 공경하고자 노력한 나머지 당시 북경에는 천주 공경이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북경에 보내어 천주교 서적을 가져오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승훈은 이벽에게 가서 자신이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 북경에 간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벽은 이승훈에게 북경에 가져든 서양 사람들을 찾아가 천주교 서적을 얻어 오라고 하였습니다.²⁹⁾

이렇게 당대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로부터 학덕이 출중한 고매하고 신선 같은 귀인으로 추모되는 이벽의 博雅한 인품으로 볼 때, 또 상대적인 증명 이 되는 反西教 유학자들이 작성하여 돌린 상소문에서 그를 천주교의 수괴로 지목한 사실을 볼 때 철저한 구도적 연구를 거쳐 자발적으로 수용한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고 삶을 불태운 이벽의 천주교에서 위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走魚寺와 天眞庵에서 가진 초기 천주교 모임은 유학을 부인하는 천주교 신앙이 아니라 유학의 입장에 있으면서 유학의 가르침을 보다 확충하고 주자학만으로는 세상을 이끌 수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천주교는 올바르며 나라와 백성에게 해가 되지 않는 신봉할만한 가치가 있는 異學이자 異教로서 ‘보유론적 천주신앙’을 수용한 것이다.

29) 김대건 신부, <조선천주교회약사보고서(朝鮮天主教會略史報告書)>.

3. <여니벽선심몽회록>의 특징

1) <여니벽선심몽회록>의 특징

몽유록은 꿈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의를 하는 문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꿈은 꿈을 꾸는 당사자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생각을 통해 재구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몽유록의 주인공은 주로 현실에서 억압되거나 소외된 자들이며 꿈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복원된, 환상의 공간을 마주한다. 꿈속의 세계는 억압된 기억이 표출되기도 하고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해소되기도 한다. 벤야민³⁰⁾은 전통적인 선형적 역사관을 비판하며 과거의 사건들이 특정한 순간에 현재와 맞물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그는 역사 속에 억압되었던 기억들이 현재의 시점에 폭로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강조했는데, 몽유록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재현하여 과거의 억압된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몽유록의 서사구조는 ‘현실-꿈-현실’로 이루어지며 주인공은 꿈을 통해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경험한다. 몽유록의 꿈속 세계는 현실의 문제를 우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작품 내에서 주인공이 꾸는 꿈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공간이며 이 공간은 대부분 현실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된다.³¹⁾

몽회록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30) 발터 벤야민 지음, 최성만·김유동 옮김, 『독일 비애극의 원천』,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9, 246~247쪽.

31) 신재홍은 몽유 모티프 작품들의 양식을 변별할 수 있는 요소로 환상성과 현실성, 욕망과 이념의 개념을 주요한 요소로 삼았다.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2, 46~70쪽.

㉔ 병오년 뉴월 열나훗날 밤 여가 문뜩 일장 꿈을 쫓느니 흐 괴이하고 령특하고 신기하야 녀겨 적느니라

흐날에 먹당긔흔 검정 구름이 온통 되덮고 잇스온디 사방은 혼피하야 안지가 끼여 잇스오니 디턱을 분별하옵기 심히 난흐온 그온더로 급기야 일장셔기가 빗느더니 퇴성일갈하고 돌풍우 모라치니 괴암상에 흐 선비가 셔 계시드라 쇼성이 황급하야 물너셔서 정색하야 국궁디령 하얏드니 선비 옥안선풍 곱고 육사 단접 비자 밀화단초 다라 립고 도포받쳐 흑사 씨물 흉중에 놀러미고 육분당혜 신고 서서 년즈시 웃스신 모습이 신선이 느른듯 슬기로운 재비옵 하얏도다 쇼성이 황공하야 디령분부 기드리졌드니 낭즈하고 청스흔 말스흐시는지라 여가 이 세상을 써는지 육순 병오 뉴월 열나훗날 오늘이라 너에게 긴히 흘 전갈이 잇서듬에 나왔노라 하시드라

쇼성은 본시 리쥬 덩이요 군의 맛이들 디는 학술이라 하옵니다 니르니 여는 덕도라 하시드라 쇼성이 또흔 황공하야 묵묵부답 하얏드니 니가 비록 어리나 여의 말을 귀히 녀겨 디나고 보면 나라에서 큰 사람될지니 실형하라 하시드라 연후에 흐날을 손짓하야 보게하시니 무릇 일월성진과 풍우만상이 묘히 운형흐른 다 저놈픈 턴쥬 계셔서 뜻하시느 되로 잇스미라 하시드라

기존 몽유록의 몽중 서사가 '좌정-토론-시연'의 3단 구성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 소설은 이런 서술구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19세기에 오면 이렇게 단형화된 서사의 몽유록이 나타나는데, 이 작품도 단형성이라는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등장인물도 몽유자인 정학술과 이벽 선생의 만남과 예언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입몽-몽유-각몽'의 구성 단계가 명확하다. 정돈된 서사를 제공하지 않고 자신이 꾸 꿈의 단상을 기록하는 몽기와는 구성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니벽선성몽회록>이 몽유록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과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독특하게도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세상의 종말이 주 내용인 점은 기존의 몽유록과는 변별되는 지점이라 하겠다. 몽기가 꿈의 기록을 통해 의미를 성찰하는 1인

칭 진술의 후기가 큰 역할을 한다면, 몽유록의 후기는 꿈을 통한 자신의 성찰보다는 짝막하게 마무리되거나 길더라도 몽유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마무리된다.³²⁾ <여니벽선성몽회록>도 각몽 후 이벽의 전기가 추가되면서 몽유의 내용에 신뢰감을 형성하려고 한 장치로 보인다.

입몽하자마자 이벽 선생의 등장은 天上仙官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소설적 장치를 더해 장엄한 신비감을 가중시켰다. 이벽의 등장과 외모에 대한 묘사도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이런 신비한 분위기는 ‘풍운조화를 타고 가시지 전에 물어 뵈옵자고 흐얏드니’라는 표현이나 <이벽전>에서 ‘종적을 감추드니 필경 득도흐야 뉴월 십스일 즈시에 승턴직로 흐시다 흐나니라’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신선과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의 연출은 조선 후기 널리 유행했던 신선전과 초기 천주교 신자 중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도교 계통의 <정감록>신앙에 빠졌던 정황과 무관하지 않다. 황사영백서에도 정약종이나 김건순(金建淳, 1775~1801), 강이천(姜彝天, 1768~1801) 등도 선도나 선술 등 장생불사에 대한 관심을 통해 천주교로 입교하였다고 한다.³³⁾

하지만, 당대에도 이벽의 학문과 활약상·성품 등은 기록을 통해서도 이미 신선의 모습으로 묘사된 바가 적지 않다.

㊤ 소식은 재주 높아 물과 달을 얘기했고
이응은 이름 중해 신선과 같았지.³⁴⁾

32) 양혜승, 「19세기 夢遊錄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64~65쪽.

33) 김영수, 「한국 가톨릭 전승의 형상화 방식-이벽과 <여니벽선성몽회록>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4, 2007, 48쪽.

34) 同友人李德操乘舟入京 벗 덕조 이벽과 함께 배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다 [同友人李德操【槃】乘舟入京] (여유당전서 - 시문집 (시) 1권, 심경호, 박석무, 송재소, 임형택, 성백효)

蘇軾才高淡水月 李膺名重若神仙

정약용은 이벽을, 초연한 사상을 지녔던 소식(蘇軾)과 개결하여 명망이 높았던 이응(李膺)³⁵에 견주어 칭송하였다. 관리인 이응(李膺)은 퇴폐한 환관(宦官)들과 맞서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정의파 관료의 영수(領袖)로, 몸가짐이 고결하고 청백하여 당시 청년관리들은 그와 알게 되는 것을 등용문이라 하여 몹시 자랑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이벽은 살아생전에도 신선과 같은 모습으로 비취졌던 것이다.

㉔ 근래 서울에서 서학과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서명응과 아들 서호수, 그리고 또 이벽이 있는데, 그는 무인 이격의 아우입니다. 과거를 그만두고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됨이 고결하고, 지금 저등에 삽니다.³⁶

㉕ 이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천군 이정암의 후손이요, 병사 이들의 아들로 이격의 형입니다. 책을 볼 때 한 번에 열줄씩 읽어 책장을 넘기는 것이 나는 듯합니다. 한쪽 눈이 위를 보며 한쪽 눈으로는 아래를 볼 수 있고, 한쪽 눈은 왼편을 보면서 다른 한 눈은 오른편을 본답니다. 팔뚝뼈가 돌이 아닌 통뼈로, 능히 세 번 공중돌기를 하고, 위로 두 길이나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서양의 <천주실의>를 몹시 좋아해서, 한때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가, 나이 서른에 일찍 죽었습니다. 근년에 임금께서 서양의 학문은 율학과 역학 그리고 수학 외에 <천주실의>의 학문을 하는 자는 형조에서 그 책을 다 모아다가 불지르게 하고 안팎으로 엄하게 금하

35) 이응은 한(漢)나라 영천(潁川) 양성(襄城) 사람으로, 자는 원례(元禮)이다. 환제(桓帝) 때 사제 교위(司隸校尉)까지 지냈는데 태학생의 영수 곽태(郭泰) 등과 연대하여 환관의 전횡을 반대하다가, 당을 결성하여 조정을 비판한다는 환관의 모함으로 쫓겨나 종신토록 금고(禁錮)를 당하였다. 이응·곽태·진번(陳蕃)·두밀(杜密) 등은 당시에 으뜸가는 명사들이었는데, 곽태가 낙양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를 전송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타고 온 수레가 수천 량이나 늘어섰다. 곽태가 이응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자 수많은 손님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 신선 같다고 했다. 《후한서(後漢書)》 권67 <당고열전(黨錮列傳)>, 권68 <곽태전(郭泰傳)>에 나온다.

36) 정민(2022), 앞의 책, 83쪽에서 재인용.

였습니다. 이 군은 이때 계방의 별도 천거로 들어가, 상소하여 스스로 천주학의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³⁷⁾

㉔는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에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이벽에 대해 평한 글이다. 조선 시대 간서치(看書癡)라는 별호가 붙을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청나라에까지 四家詩人³⁸⁾의 한 사람으로 문명까지 날린 실학자였던 이덕무에게도 이벽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벽이 실학자인 이병후에게서 공부를 했었고, 박제가 또한 이벽의 사후 사도시를 지은 것을 보면 이덕무와 이벽이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더라도 ‘사람됨이 고결’ 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있었던 것이다. 황윤석이 관심을 갖고 기록한 일기에서 평가된 이벽의 인품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㉕는 황윤석과 나동선(羅東善, 1743~?) 대화 중 이벽에 대한 평이다. 실제 이벽의 가계와는 오류가 있는 언급이지만, 그의 천재성과 무관 집안의 아들로서의 풍채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높게 평가한 것 같다. 그의 이름에 항상 천주학에 대한 언급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 그의 학문이 얼마나 높은 경지였는지 알 수 있다.

<여니벽선성몽회록>에 예언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천주교를 굳게 믿다 끝내 순교한 정약종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이벽인 까닭은 당대에도 신선과 같은 학문의 깊이와 고결한 인품으로 칭송된 인물이고, 그런 그를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정황이 천주교 내에서도 숭앙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교회사 자료에서 이벽이 천주교회의 주도자로 나타난 사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여

37) 정민(2022), 앞의 책, 84쪽에서 재인용.

38) 조선 후기 서울 출신의 실학자 그룹인 이용후생파의 한 가치를 형성한 이덕무, 박제가, 이서구, 유득공을 가리킨다.

전히 남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 중 <봉선서(封禪書)>에서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 신선의 경지에 오른 기록이라던가 고려와 조선의 민속 설화와 문학작품에 현실의 왕이나 선비를 신선으로 묘사한 내용이 많은데, 이들 작품에서는 이상적인 지도자나 현자를 신선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공적과 도덕성을 기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벽의 등장도 이런 문학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벽이 신선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단순히 도교적 신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천주교 내에서의 이벽의 위상과 존경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유불선 등의 종교의 문제에 대한 정학술과의 대화에서 부처나 공자, 맹자를 신으로 모시는 것은 부정하고 있으나 공적을 인정하는 관대함을 보이면서도 옥황상제나 용왕에 대해서는 천주를 배반하는 대죄라고 언급하는 것도 그의 천주교 사상에 대한 존경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당시 소설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신성한 존재에 대한 묘사가 신선 외에는 달리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하여 신선사상에 입각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2) 종말론적 사유와 기억의 복원

- ㉞ 그리흐오면 쇼성이 무슨 분부 붓즈을 일이 잇스온더 디령흐오리까 흐얏드니 다름이 아니라 지는 병오년에 느의 턴쥬밀험기를 늬가 재사흐야 교도에 알릴지니 그 밀험기는 경기도 포천쌍 장슈리 승천고를 널바위에 잇스니 그리 알고 썩 날근 연후이는 그디로 실형흐라 흐시드라 그리흐오면 밀험기는 무슨 사연이 적혀 잇스오니까 하니 다름이 아니라 금 병오년 오월 오시가 지는면 다음 병오년 사이에 큰 변괴가 니러 외통 세상과 사름이 뒤버 띄며 턴되가 혼돈흐고 턴쥬 세상을 다시 심판흐시는 글월이 잇느니라 흐시드라 그리흐오면 우리 교도는 엇썌 흐리요 하니 다 날근 연후샤 알지되리라 흐시도라

본디 이덕도 선성이 지으신 턴쥬밀헝귀라 ᄇ는 거슨 턴당디옥귀와 령득경신
귀와 헝세문득귀와 리세례언귀가 잇스니 리세례언귀는 죄지은 무리로 인ᄇ야
턴쥬 그 판가름을 ᄇ시는 거시라 디인이면 누구나 다 올고 잇서야 ᄇ를 거시니
풍운조화를 타고 가시기 전에 물어 뵈옵고자 ᄇ얏드니 묵묵ᄇ시드라.

㉞는 종말론 예언의 근거가 되는 <턴쥬밀헝귀>라는 책에 대한 대화이
다. 이벽이 책을 지었다는 병오년은 이벽의 사망년으로 추정되는 해로 몽
회록에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승천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벽이
승천한 병오와 1846년의 병오를 일치시킨 것은 몽회록의 작자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는 현실에 대한 보상기제인 것이다. 천주의 사자인듯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벽이 <턴쥬밀헝귀>를 통해 예언하고자 한 것은 천주교도들이
오랫동안 소원해 마지않던 새로운 세상과 종교의 자유이며 이것은 작자의
염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 뒤로 이어지는 <종말론>은 1794년부터 1846년까지의 역사적 사실
이 언급되어 있다

㉞ 그러ᄇ으면 그 요지는 갑인을묘에 서방인 동방턴사 뵈빈ᄇ야 형세를 알리
고 턴당으로 가느니 다시 도령과 민심이 동ᄇ야 크게 괴변이 날어나고 병
진덩스에는 부자 형데 날가 친척이 서로 반복ᄇ야 산ᄇ야 음산ᄇ고 괴미
경신지곤에는 국운이 어지러워지고 신유임술지곤에는 서학교도가 참살당
ᄇ니 그 궤가 강산을 몰드리고 사름인 자는 합구무언이라 임술개희지곤에
는 산천이조ᄇ고 화가 성ᄇ야 불길이 턴디를 티우고 남는 거시 돌과 ᄇ기
로다 갑즈을축지곤에는 요성이 침ᄇᄇ고 병인덩묘이는 사ᄇ물이 넘치고
그벳치 불그니라 무진근사이는 비가 쫓칠날이 업슬지라 경오신비지곤에
는 도적이 사ᄇ궁을 침범ᄇ고 크게 민난이 일이로다 임신지유이는 곡식이
여물지 못ᄇ야 쥬린 빅성이 처자권속을 상식ᄇ리라 감슬을ᄇ이는 청ᄇ빅
일ᄇ이 뵈성이 진동ᄇ야 만인이 경악ᄇ고 병자ᄇ축간이는 ᄇ뵈보는 날이
업고 디축이 몰바다라 무인근묘곤이는 썩속 곡성이 진동ᄇ야 서방에서는

포성이 쫓치지 아니 흐리라 경진신사지근이는 괴질악질이 만연하야 시슈
 ㄱ 강을 니루고 악취가 끈치 안흐리라 임오기미지근이는 산천이 밤마다
 절로 우니 만민이 진를하고 갑신을유익는 요화이리하야 대궐이 불붓고 병
 술덩히이는 오뉴월에 눈서리가 오니 괴변이라 무즈괴축지근이는 출제가
 니러나 산천초목이 남지 안흐리라 경인신묘이는 요승이 대치하야 흑세무
 민으니 기이흐리라

임진계사이는 윤질괴질이 대치하나 셔방턴샤 다녀ㄴ니 길흉을 판별치 못
 흐리라 갑우을미이는 곡성이 진동하야 부지라 병시덩유익는 다시 셔방샤
 샤 리도흐니 만민이 겨악하고 무술괴히지근이는 다시 셔학교도 참살당하
 야 민심이 흉흉하고 경즈신축지근이 리성이 부지하고 빅일하에 더우가 느
 리나라임인지모지근은 당쟁 잇스리라 갑진을사지근이는 민심이 스스로
 동요하야 동흐리라 병오 후로는 리세가 림하야 죄잇는자 모두 토멸당하야
 선하고 텃주공경하는 자 혹 세상을 니어갈 썩가 오고 잇느니라 흐드라

<여니벽선성몽회록>에서 정학술이 꿈을 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 1846년 병오년은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계속되던 때였다. 진산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신해박해(1791)를 시작으로 황사영백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신유박해(1801) 이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박해 속에서도 점차 교세를 확보하고 프랑스인 신부 3명이 조선에 들어와 활동하던 중에 기해 박해(1839)가 일어났다. 이때 프랑스인 신부 3명과 함께 118명이 순교하였다. 1846년 6월에는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체포되어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김대건이 체포되고 같은 달 6월 18일 인도와 중국의 프랑스 함대 사령관인 세실(Cecile)이 외연도에 상륙하여 서신을 전달했다. 기해 박해 때 3명의 프랑스 신부가 조선에서 사형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돌아갔는데, 이 사건은 조선 정부에게 많은 소요를 일으켰으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황사영백서를 보고 경악해 마지않던 大舶이 진짜 출현한 것이다. 조선 정부의 답신을 받기도 전에 프랑스 함대는 돌아갔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퍼져있던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화된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大舶請來는 1795년 주문모와 조선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쓴 청원서에 있는 내용이다. 이들은 대박청래의 날을 고대하며 살았다. 예수가 태어난 간지와 일치하는 경신년(1800년)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1천 척의 배가 몰려들어 조선 정부를 겁박하면, 일장판결이 나서 그것으로 조선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믿었다. '세상은 머잖아 천주의 세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서학범(西學汎)>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육 제도에 일대 혁신이 오고, 온갖 불의와 부패가 사라져 천주의 가르침이 가득 펼쳐질 것이었다.³⁹⁾ 세계정세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던 천주교 신자들은 폭압과 환란이 가득한 조선 사회를 종말의 증거로 보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대대적인 박해와 폭압 속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천주를 섬기는 권리를 존중받길 원했던 것이다.

<여니벽선심몽회록>에는 조선후기 변란 및 자연재해와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박해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박해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 하지만, 1846년의 현실만 빼면 그 이전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겪은 일의 열거 즉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여니벽선심몽회록>의 주인공이 이벽을 만나 역사적 사건을 우의한 예언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복원시켰다. 벤야민은 역사를 단순한 진보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과거의 파편화된 기억들이 현재의 순간과 충돌하며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고, 이런 파국적 순간에 새로운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 복원되고 이러한 역사적 진실은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나며 현재의 순간과 충돌하는데 이것은 곧 천주의 심판과 사회체제 개혁 담론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예

39) 정민(2022), 앞의 책, 692쪽 참조.

언의 내용과 충돌하지만,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부조리를 우의적으로 복원하고 과거에 대한 비판의식과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뒤에 다시 발생하는 병인박해의 도래를 몰랐을 작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병오박해의 현실을 새로운 세상의 도래라는 염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4. <여니벽선심몽회록>의 가치와 의의

몽유록과 열전의 양식이 결합된 <여니벽선심몽회록>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몽유록에서의 예언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이벽전>이 결합되었다고 추정되지만, 기존에는 결합되지 않았던 양식을 몽유록에서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벽전>의 내용이 실제 이벽의 생애와 부합하지 않는 면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작품은 소설이라는 허구의 장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분석해야 한다. <이벽전>은 몽회록의 내용에 신뢰감을 더하기 위한 열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소설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문학사에 있어 하나의 역사적 장르(historical genre)는 기존 장르의 여러 특성들이 복합하거나 특수하게 발전하면서 형성되는데, 이 역사적 장르로부터 抽象될 수 있는, 즉 그 역사적 장르의 장르적 속성을 표상하는 양식(mode)은, 한 시대의 역사적 장르가 소멸되더라도 존존하여 장르 복합을 통해 후대에 새로운 장르 형성에 기여하거나 혹은 후대의 여러 작품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⁴⁰⁾

40)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118쪽에서 재인용. : Alastair Fowler, *The Life and Death of Literary Forms, New Directions in Literary*

또한 이 작품은 몽유록에서 서사와 논설의 결합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고 새로운 인식을 창출하여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몽유록은 특히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창작되었던 양식으로 과거의 억압된 기억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념적 대결 양상이 치열했던 1900년대의 雜文 혹은 雜著로 포함되는 몽유양식 산문들도 대부분 꿈 속세계가 문답이나 대화를 통한 토론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 토론의 내용은 주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지향해야 할 이념의 제시이다.⁴¹⁾ 그때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몽유록을 수용해 당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천주교 박해를 통해 나타나는 이념 갈등 양상을 앞서 보여주고 있는 <여니벽선성몽회록>은 몽유록 고유의 비판 의식을 이었으면서도 <정감록>과 같은 비결 신앙과의 문화 수용 양상 등을 보여준다는 의의도 이 작품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몽유록이라는 양식이 단순한 환상적 서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부조리를 우의적으로 복원하고 과거에 대한 비판 의식과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언의 양식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원래부터 우언 자체가 ‘비유기탁을 담은 단형의 이야기’이므로 변격이라기보다는 우언의 양식적 특징에 충실한 몽유록이라 할 수 있겠다. 우언은 의미전달을 위한 설득의 담론으로, 교술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창작에서 효과적인 우의 전달을 위해 구사하는 가상설정, 토의구조, 쟁변화소 등이 본연의 ‘교술성’을 뛰어넘어 서사문학의 속성인 허구성 내지 창조성을 연출하는 데서 정채를 발하였다. 따라서 서사문학, 특히 허구적 서사양식의 전개에 있어서 일찍부터 창작을 거듭하여 발달해 온 우언은 문학적 관습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니벽선성몽회록>은 이벽과 정학술의 만남을 가상으로

History, R. Cohen ed, Routledge&Kegan Paul, London, 1974.

41)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역락, 2012, 254~323쪽.

설정하고 토의구조를 적절히 활용하여 천주교 신앙을 통한 사회체제 개혁 담론을 강조하려는 문학적 욕구가 드러난 몽유록이라고 할 수 있다.

단형이면서 독특한 형식과 주제를 구현한 몽유록이지만 그런 점이 몽유록이라는 문학 갈래에서 간과될 수는 없다. 문화 수용양상, 타 문학 갈래와의 교섭, 개성적인 글쓰기로서의 특질, 박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간절한 염원과 자유 의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라는 서사의 기록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도 이 작품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5. 나가며

본고는 이벽의 삶과 <여니벽선심몽회록>을 중심으로 형상화 양상과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니벽선심몽회록>은 19세기 몽유록으로 단형화된 몽유록이며 천주교 사상을 담은 특이한 서술구조와 사유로 적절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한 일면이 있다. 몽유록의 전형적 특징은 사라지고 천주교 인물들의 대화와 특이하게도 열린 양식이 결합되어 독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조선후기 사회상과 천주교 수용을 짚어 보았으며 한국 천주교 회사에서 이벽의 존재를 그의 삶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통해 추적해 보았다. 이벽은 다산 정약용에게 깊은 학문적 영향을 주었으며, 당대 최고의 유학자로 인정받았던 이가환을 개종시키고 다산 형제들도 개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 천주교 초기의 실질적인 교회 지도자로서 설교와 교리해설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었다. 이것은 최근 천주교회서 진행하고 있는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 시성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볼 때 이벽이 배교자로 사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벽이 천주

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후대에까지 강하게 남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철저한 구도적 연구를 거쳐 자발적으로 수용한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고 삶을 불태운 이벽의 천주교에서 위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3장에서는 이벽의 형상화 양상을 통해 이벽의 천상선관의 모습으로 등장과 신비로운 분위기의 연출은 조선후기 널리 유행했던 <정감록>과 같은 비결신앙의 영향도 있지만, 당대에도 신선과 같은 학문의 깊이와 고결한 인품으로 칭송된 인물이고, 그런 그를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정황이 천주교 내에서도 숭앙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벽이 신선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단순히 도교적 신선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천주교 내에서의 이벽의 위상과 존경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여니벽선심몽회록〉에는 조선후기 변란 및 자연재해와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박해사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박해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 하지만, 1846년의 현실만 빼면 그 이전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겪은 일의 열거 즉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여니벽선심몽회록〉의 주인공이 이벽을 만나 역사적 사건을 우의한 예언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복원시켰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 복원되고 이러한 역사적 진실은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나며 현재의 순간과 충돌하는데 이것은 곧 천주의 심판과 사회체제 개혁 담론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예언의 내용과 충돌하지만,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부조리를 우의적으로 복원하고 과거에 대한 비판의식과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몽유록에서 서사와 논설의 결합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고 새로운 인식을 창출하여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몽유록을 수용해 당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천주교 박해를 통해 나타나는 이념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여니벽선심몽회록〉은 몽유록 고유의 비판 의식을 이었으면서도 <정감록>과 같은 비결 신앙과의

문화수용 양상 등을 보여준다는 의의도 이 작품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몽유록이라는 양식이 단순한 환상적 서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부조리를 우의적으로 복원하고 과거에 대한 비판 의식와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대건 신부, <조선천주교회약사보고서(朝鮮天主教會略史報告書)>.
李晩采 編, 『關衛編』(影印), 卷2, 김시준 편역, 열화당, 1971.
“이벽”,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1~1421쪽.
丁若鏞, <中庸講義補>, 정인보·안재홍 校閱, 『與猶堂全書』 第2集 4卷, 디지털 장서각.
정약용 저, <友人李德操輓詞>, 與猶堂全書[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一卷 詩集, 디지털장서각.
박제가 지음·정민, 이승수, 박수밀 번역, 『정유각집』 상, 돌베개, 2010, 591쪽, 四悼詩 四首 중 李德操[藜].
- 김영수, 「한국 가톨릭 전승의 형상화 방식-이벽과 <여니벽선성몽회록>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4호, 2007, 29~58쪽.
김옥희, 「류한당 권씨 언행실록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27, 일지사, 1982, 2050~2083쪽.
金玉姬, 「西學의 受容과 그 意識構造」, 『韓國西學思想史 研究』 國學資料院, 1998, 1~1086쪽.
노대환, 「조선 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1997, 121~154쪽.
다블뤼, 「조선순교사비망기」, 『하느님의 증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제 1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2017, 1~382쪽.
발터 벤야민 지음, 최성만·김유동 옮김, 『독일 비애극의 원천』,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9, 1~399쪽.
배요한,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 이벽의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41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11, 393~415쪽.
샤를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1~618쪽.
소재영, 「資料解題」, 『승실어문』 1, 숭실대 국어국문학회, 1984, 215~291쪽.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2, 1~653쪽.
양혜승, 「19세기 夢遊錄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178쪽.
윤민구, 『초기 한국천주교회사의 쟁점 연구』, 국학자료원, 2014, 1~245쪽.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이벽의 한국적 신학원리』 제3판, 분도출판사, 2001,

1~352쪽.

장경남, 「18~19세기 연행록의 천주당 건문기와 서학 인식」, 『근대전환기 문학·예술의 메타모포시스』, 도서출판 선인, 2019, 1~259쪽.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1~802쪽.

정민, 『다산독본 파란 1』, 천년의 상상, 2019, 1~364쪽.

_____,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김영사, 2022, 1~904쪽.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1977, 277~298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제 3판), 지식산업사, 1995, 1~628쪽.

조성용, 「〈여니벽선성몽회록〉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95쪽.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 특별위원회 편찬,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1~382쪽.

최익한 지음, 송찬섭 엮음, 『실학파와 정다산』, 서해문집, 2011, 1~592쪽.

ABSTRACT

The Shape and Features of “Yeo Tr.Yibyeok Monghoerok”

Yang, Hye-seung

This paper discusses the life of Yi Byeok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spects of the formation of Yeo Tr.Yibyeok Monghoerok. As a 19th-century dream-journey narrative (mongyurok), Yeo Tr.Yibyeok Monghoerok is a condensed form of the genre, containing Catholic ideology and an unusual narrative structure that has not yet been fully explored in discourse.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mongyurok have disappeared, and the work uniquely combines dialogues between Catholic figures with a biographical style, creating a distinctive piece.

In Chapter 2, I examined the social landscape of the late Joseon period and the acceptance of Catholicism, tracing the presence of Yi Byeok through various records of his life in Korean Catholic history. Yi Byeok greatly influenced Dasan Jeong Yak-yong academically, converted the renowned Confucian scholar Yi Ga-hwan,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converting Dasan's brothers. Moreover, Yi Byeok served as a practical church leader in the early days of Korean Catholicism, responsible for preaching and explaining doctrines. His significance is closely tied to the ongoing beatification and canonization process of “John the Baptist Yi Byeok and 132 Companions” within the Catholic Church. Based on various historical records, it is evident that Yi Byeok could not have died as an apostate, and his lasting influence on the Korean Catholic Church is undeniable. His position within the Church, as someone who fiercely defended the truth of the faith he had voluntarily embraced through rigorous spiritual study, is highly regarded.

In Chapter 3, I explored the aspects of Yi Byeok's portrayal, focusing on how he appears as a heavenly Taoist hermit, with a mystical atmosphere. While this may reflect the influence of secret faiths like

Jeonggamrok that were popular in the late Joseon period, Yi Byeok was also praised for his deep scholarship and noble character, akin to a Taoist immortal. Such circumstances likely contributed to early Catholic believers revering him as a teacher, a fact that also led to his veneration within the Church. In this sense, Yi Byeok's appearance as a Taoist hermit should not be seen merely as a depiction of a Taoist figure but rather as a reflection of his esteemed status within the Catholic community.

Yeo Tr.Yibyeok Monghoerok also includes prophecies about persecution, along with records of the political upheavals and natural disasters of the late Joseon period,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considered a chronicle of Catholic persecution in Korea. However, aside from the events of 1846, the earlier prophecies are not predictions but rather descriptions of events that had already taken place — essentially, historical facts. The author of Yeo Tr.Yibyeok Monghoerok uses the protagonist's meeting with Yi Byeok to restore memories of past events through allegorical prophecy. As these past memories are revived, historical truths collide with the present moment when the protagonist awakens from the dream, creating new meaning in the context of divine judgment and discourse on societal reform. Although the protagonist's awakened reality conflicts with the prophecy, this allegorical restoration of social and political corruption serves to critique the past and guide new perspectives.

This work is significant in that it restores past memories and generates new awareness, offering lessons through the combination of narrative and discourse within the dream-journey genre. Yeo Tr.Yibyeok Monghoerok inherits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mongyurok and demonstrates cultural reception patterns similar to those found in secret faiths like Jeonggamrok, while also critiquing contemporary social issues and ideological conflicts arising from Catholic persecution. The mongyurok genre, far from being a simple fantasy narrative, serves as an allegorical tool to critique the social and political corruption of the time and foster critical thinking and new awareness of the past.

Key Words Yeo Tr.Yibyeok Monghoerok, Yi Byeok, Catholicism, Restoration of Memory, Cultural Reception, Discourse on Social System Reform, Allegory

논문투고일: 2024.10.22.

심사완료일: 2024.11.06.

게재확정일: 2024.11.17.